미공군기 소음에 멍드는 교육

인근 선연초교 난청·정서불안 등 후유증 심각

기준치 95에 90WECPNL 판정, 대책 강구돼야

미군비행장의 전투훈련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학교의 건물 전체를 흔들어놓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 개선에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소음측정 결과에 따르면 미군비행장에 가장 인근한 선연초교의 경우로 90(WECPWL)로 기준치 95(WECPEL)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상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실정이다.

전투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전교의 창문을 모두 닫아도 학교 건물 전체에 진동이 일 정도이다. 이에 학생들은 심한 난청현상에 항상 큰 소리로 대화를 해야 하고 주위가 산만할 뿐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눈에 띄는 정서불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선연초교 이안호 교사는 "비행기 이·착륙시 더욱더 목청을 높이거나 기다렸다가 수업을 진행한다"며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토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이전 외에는 뚜렷한 대책마련이 어렵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우려의 말을 덧붙인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차치하고라도 신성한 교육현장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군비행장 소음문제. 하지만 일개 지역민의 고민이 아닌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애진 기자〉